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	보 도 자 료	KPIPA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자	2025. 3. 13.(목)	배포	대외협력팀 이민주 대리 063-219-2746/ minju@kpipa.or.kr
첨부파일	-	담당	출판전산망운영실 김지훈 주임 063-219-2773/ kjh528491@kpipa.or.kr

흩어진 도서 재고 현황,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한눈에

- 출판유통통합전산망, 대형 도서 유통사 '웅진북센' 재고 정보 제공 시작
- 한국출판협동조합, 지역서점에 이어 재고 정보 확보 성과

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원장 직무대행 이재선, 이하 출판진흥원)은 웅진북센(대표이사 이정훈)의 도서 재고 현황을 공유받아, 3월 13일(목)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(이하 출판전산망)*에서 재고 도서 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.

* 2021년 9월 개통되어 출판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, 주요 유통사 및 지역서점의 도서판매데이터를 수집해 도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·판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·관리, 도서관 대출 통계 열람, 도서관 수서 기능 지원 등 다양한 산업 통계 및 홍보자료로 활용

□ 출판사에서 도서를 등록하면 즉시 자사의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웅진북센 등 도서 재고 정보는 출판전산망(bnk.kpipa.or.kr)의 '재고 정보 현황'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판사가 재고 파악을 위해 물류사별 시스템에 매번 접속해야 하는 피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, 일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 증쇄 및 기획 자료로 이용하는 등 재고 관리에 있어 효율성 상승이 기대된다.

□ 출판전산망 도서 재고 공유 서비스는 그동안 출판계에서 실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 이로써 출판전산망은 한국출판협동조합, 전국 지역서점에 이어 웅

진북센의 도서 재고 정보까지 확보하여 분산된 출판산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.

□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“웅진북센의 재고 정보 공유로 출판사는 도서 유통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. 출판전산망은 앞으로도 출판사 운영에 효과적인 서비스로 다가갈 것”이라며 “이번 민관협력은 건전한 출판유통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걸음이다. 영화·공연 전산망처럼 출판산업도 주요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”라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전산망운영실 김지훈 주임
(☎ 063-219-27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